

“대미관세 불확실성 어느정도 해소 산업 근원 경쟁력 강화 집중해야”

산업부, 정책자문위 첫 회의

산업·통상·자원 전문가 26명 구성
체감 가능 ‘효능감 있는 정책’ 목표

산업통상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새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꾸려졌다.

자문위에는 산업·통상·자원 등 3대 축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26명(산업 11명, 통상 7명, 자원 8명)으로 구성된다. 산업 분야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이 참여하고, 통상 분야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지형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자원 분야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심형진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산업부는 자문위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 전반에서 민간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제조업의 AI 전환(AI X)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성장엔진 구축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등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분야별 회의를 정례화해 전문가와의 협의·소통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제를 끌어내는 한편, 산업 현장, 연구기관, 지자체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쳐 내달 시행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11월13일~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작황부진 배추’ 비축·계약물량 방출 확대

농식품부, 농산물수급조절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배추 작황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방출을 예년 대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장관의 자문기구

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20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를 비롯해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류 연관 K-소비재, 새 수출동력으로”

산업부, 유통기업 간담회
무신사·쿠팡·CJ올리브영 등 참여
“유통플랫폼, 해외소비자 연결 가교
연내 수출 확대방안 발표할 것”

산업통상부가 K-패션·푸드·뷰티 등 한류 연관 소비재 산업을 ‘K-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맞춰 K-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고, 국내 유통 플랫폼 중심의 맞춤형 수출 전략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방문해 K-패션의 해외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무신사·달리버드코리아·쿠팡·CJ올리브영·컬리 등 주요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유통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와 K-소비재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한류 연계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K-컬처를 매개로 한 소비재 수출 육성을 위해 세 가지 축의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K-POP 콘서트, 한류박람회 등 글로벌 한류 이벤트와 연계해 K-소비재 브랜드 홍보 기회를 늘리고, 유통 플

랫폼이 직접 주도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고도화한다. 단순 판촉 지원을 넘어 ‘K-소비재 프리미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출 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부는 KOTRA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체를 물류 인프라와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제품군별로 맞춤형 물류·통관 솔루션을 제공하고, 할랄 등 국가별 인증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역직구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물류 구축과 홍보 지원, 현지 물류 파트너와의 연결, 통관·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르빵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 모습. /aT

aT, 우리밀 활용 제빵·제과 상품화 추진

‘르빵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르빵(Le Pain)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밀을 활용한 제빵·제과 기술 확산 및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국산밀을 활용한 ‘우리밀 빵드미’ 부문을 신설해 추진했다. 빵드미란 균일한 내부와 부드러운 크러스트가 특징인 촉촉한 식빵을 말한다.

대회에서는 또 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시범 추진한 블렌딩(품질 균일화를 위한 원맥 혼합) 국산밀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제빵성을 확보하며 블렌딩

국산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밀 빵드미 부문 1위는 빵고 베이커리(류신혁 조리장)가 차지했다. 빵고 베이커리의 제품은 풍성한 볼륨감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국산밀 특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리밀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위 수상자에게는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팝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경연에는 지난 9월부터 전국 35개 베이커리 업체가 치열한 예선을 거쳤다. 이달 6일 서울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 현장 결선에서 3개 우수 업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외생물자원 특허기술 3건 전문기업 이전

국립생물자원관, 건기식 개발 등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이 13일 해외생물자원을 활용해 발굴한 3건의 특허 기술을 전문기업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 특허 3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캄보디아 야생식물 3종에 찾아낸 ▲항비만 효능이 우수

한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우수한 칸레야 아르보레아 ▲악취 저감 효능이 우수한 크로톤 포일라네이와 관련된 기술이다.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에서 분리한 항비만 효능물질 기술을 이전받는 조아파마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

이 있는 칸레야 아르보레아 추출물 기술을 이전받는 뉴셀팜은 관련 천연 추출물로 아토피 개선 크림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 파마코바이오와 이엠에스가 약 10m 높이까지 자라는 열대식물 크로톤 포일라네이의 탁월한 악취저감 효능 기술을 이전받는다. 관련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탈취샴푸, 축산농가용 환경개선제를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